

AAFP학회와

2006 북미 고양이학회 참관기

Hill's Global Symposium on Feline care를 다녀와서



이미경 (캣츠앤독스 동물병원장)

몇 달동안 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군침만 삼키며 갈까말까 고민하던 학회가 있었다. 미국고양이임상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Feline practitioners, 이하 AAFP)에서 개최하는 AAFP 2006 fall conference였다. 주제는 “Geriatrics & Pain management”.

많이 목말라하던 정보라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하지만 단지 3박4일의 일정을 위해 캐나다라는 먼 거리를 왕복하려니 선뜻 용기가 생기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연이어 「Hill's Global Symposium on Feline Care」라는 Hill's사의 고양이 진료를 위한 국제적인 학술행사가 개최되는 것을 알게 되어 참가하게 되었고, 내친김에 AAFP 2006 fall conference도 등록을 마쳤다. 「고양이임상」을 단독 주제로 하는 학회에는 참가해본 적이 없어서 우리보다 선진적인 고양이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과 임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가 컸다.

임상 13년차가 되면서 스스로 직업적 도약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많았다. 나라와 개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척박해질수록 직업적인 한계와 두려움이 많아지는 터였다. 그냥 숨통이 트이면 좋겠다는 심정이었다.

우선 토론토는 캐나다 역사가 짧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도시였다. 열흘이라는 일정이 무색할 정도로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은 없었다. 그냥 여러 인종이 한꺼번에 모여서 사는 북미의 한 도시였고, 그런 만큼 타 인종에 대해 포용할 줄 아는 듯 했다. 나의 최종적인 목적은 학회에 참가해서 그곳 수의사를 만나는 것! 역시 고양이는 여자수의사에게 큰 메리트가 있나보다. 참가한 수의사와 동물병원 스텝의 90%가 여자였다. 「cat specialist」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북미 수의사들은 자신감이 넘쳐났다. 대부분 「only cat clinic」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직함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한국도 고양이문화가 빨리 발전해서 반려동물 산업의 한 축을 「고양이문화」가 차지했으면 하는 갈망이 컸다.

AAFP 2006 fall conference는 고양이임상에 관심있는 수의사, 스텝, 학생이 모두 참석하였고, 「Hill's Global Symposium on Feline Care」모임은 대부분 고양이전문이었다. 사실 수의사와 개인적으로 애

기하고 깊은 인상을 받은 쪽은 후자였다.

AAFP 2006 fall conference에서 받은 인상을 정리하면 크게 두가지였다. 북미의 고양이임상은 이제 치료적인 목적을 떠나 예방적인 의료행위에 집중한다는 점과 고양이를 고양이과 동물로 분리하여 품종적인 특징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시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예방적인 의료행위란 단순히 예방접종이 아니라, 스트레스, 통증, 먹이, 생활환경 등이 고양이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질병경향을 이해하고 사전에 이를 차단

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다음의 문구가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화두였다.

“What makes a cat a cat!

Cats are predatory, solitary, maternal, nocturnal, territorial carnivores.

고양이의 건강문제는 이러한 고양이의 본능과 천연의 생활습성을 무시한 채 사람과 함께 생활하다보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본능을 되살려줄 때 예견되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 한 예로 “Outdoors cat!”이라는 모토아래 가급적 고양이가 집밖으로 나가게 하자는 운동을 하고 있었다. 되도록 많이 움직여 운동하게 하고, 실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하고, 외부에서 받는 여러 자극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윤택나는 생활을 하자는 취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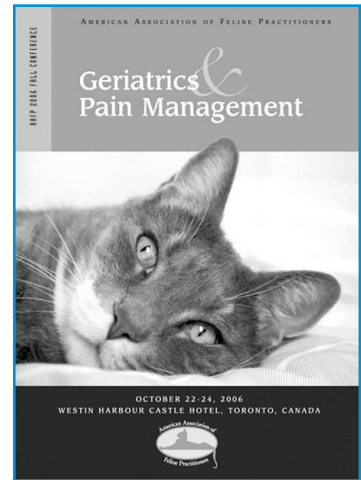
참 낯선 문화 가운데 하나였다. 나만 그런 것은 아니었던 듯, 그곳에 있던 참가자 하나가 질문을 던졌다. “외부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싸움, 교통사고, 고아 등은 어떻게 하는가?” 대답은 “그러한 문제를 감수해도 고양이에게 외부생활을 장려하는 것은 더 큰 충분한 가치가 있다”였다. 고양이학회를 참가하면서 이들은 “수의사”가 아니라 “동물의사” 구나 싶었다.

사실 테크닉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한국수의사나 북미의 의사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조금 간격이 생기는 부분은 여러 정보를 통해 메우면 되는 것이고...

하지만, 고양이임상을 받쳐주는 사회적인 반려동물문화와, 이를 선도해나가는 의사의 안목과 비전은 한국과는 사뭇 차이가 있음을 자존심이 상하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AAFP학회는 이방인으로 참가를 했다면, Hill's Global Symposium은 좀더 적극적이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는 자리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등 약 200명의 내노라하는 고양이전문들이 모였다. 약간 주눅이 들었지만, 먼 길을 올 한만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40분~50분 발췌하고 테이블별로, 혹은 전체가 토론하는 형식으로 심포지움이 진행되었다. 역시 자신의 전문과목이라 그런지 정열적으로



얘기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였다. 재밌는 것은 그곳에 참석한 고양이전문의들이 대부분 내과 의사인지 몰라도, 비침습성 치료를 선호하는 듯한 인상을 매우 강하게 받았다.

또 유럽,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 등 나라마다 같은 질병에 대해 선호하는 약도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미국수의사의 경우 ACE inhibitor로 enalapril을 주로 쓰지만, 캐나다나 유럽의 경우 이 약물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benazepril이 가장 통용된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대체의학 내지 Holistic care에 대해 참가했던 미국수의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였다. 또 미국에서 많이 일반화 되었을거라 여겼던 신장이식부분에 대해서도 참석했던 많은 수의사들이 회의적인 반응이였다. 생존하는 시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위험과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에서였다.

1998년에 미국 오하이오를 방문하여 체류할때는 고양이임상이 많이 낮설고 경험이 적었던 부분이라, 진료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곳 임상 분위기가 경이롭고 신비하게만 보였었다.

이렇게도 수의사를 하는구나 동경에 가득찬 눈으로 부러움에 가슴이 터질 듯 싶었던 적이 있었다. 물론 아직도 그네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고양이문화와 임상은 조금 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8년 전 보았던 서구 고양이문화와, 지금 경험하는 그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한국이 많이 발전하여 변했다는 뜻이리라. 사실 한국수의사의 역량은 많이 발전했고, 또 우리나라 고양이 문화도 많이 풍성해졌다. 산업적인 면에서나 정서적인 면에서나 이전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회적으로 고양이 문화가 바뀌었다.

다만 이번 방문을 통해 새롭게 반성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두드러지게 역동적인 그곳 수의사들의 모습 이였다. 그들은 고양이 문화를 선도해가려는 노력이 역력했다. 단체와 개인병원이 협력하여 올바른 고양이 문화의 모습을 제시하고 일반인을 교육하려 힘쓰고 있었다. 고양이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위치에 수의사가 있었다. 그런 운동 속에서 의학적 조언을 위해, 질병의 치료를 위해, 건강유지를 위해 모든 방면에서 수의사는 일반인들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로 자리하는 듯 했다.

우리나라도 좀더 고양이 문화가 발전하려면 우리 수의사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새봄이 오고 경기가 활짝 풀리는 날 수의사로서 자긍심도 더 커질 수 있길 바란다.

끝으로 학회를 참석하는 큰 목적은 비전을 재정립하고 새 출발의 동기를 만드는 거였는데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 되었다. 학회 내내 나의 고객과 환자들, 내 고양이 식구들에게 미안했다. 수의사로 나를 훈련시킨 건 그들이네, 언제부터인가 내가 중심이라 착각하면서 살아왔으니...

마지막으로 Hill's 사가 국제적인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고양이의 건강과 고양이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임상을 담당하는 수의사로서 그러한 학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